



현진권 국회의원

이제 모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배워야 산다

요사이 가장 유행하는 용어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AI라 불리는 이 용어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가와 있다. AI 운전자, AI 요리사, AI 비서, AI 의사, AI 판사 등 모든 업종에 응용되는 추세다.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빅데이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의 AI 전공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세대에게는 이 같은 새로운 용어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신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약 30만여 년 정도 된다. 이후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인류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혁명적 변화는 세 차례로 분류된다. 첫 번째가 약 1만년 전에 있었던 ‘농업혁명’이다. 수렵으로 이동하는 생활에서 농업 하는 방법을 깨우친

후 정착 생활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두 번째 혁명은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출발한 ‘산업혁명’이다. 농업혁명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한 후, 산업혁명으로 공업화를 이루면서 인류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혁명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정보기술 혁명’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다. 생존을 위해 쌓아온 인류의 정보는 유전자를 통해 자손들에게 이어졌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면서 정보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인류의 지적자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기록으로 시작된 정보는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 유통 채널이 확산됐다. 이제 축적된 정보를 통해 또 다른 생활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정보는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으로 인지하는 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AI는 이제 모든 영역에 파고



국회도서관은 몇 년 전 정보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도서관 구성원들이 정보혁명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들고 있고, 기존의 영역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침묵하는 전통적 신이 아닌,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답하는 빅데이터가 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학의 학문도 고유영역이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으면 자연 도태되기 때문이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개별 학문적 이론으로 한계가 있다. 대학에서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학제 간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제 AI로 응용되고 실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아니, 창조와 혁신을 통한 변화를 위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보기술 개발은 빅데이터와 AI로 이어지고, 이후의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이제 민간기업, 금융기관, 대학 등 모든 분야는 AI적 사고와 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은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변화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에서 획일적 지시와 감독에 익숙한 업무 스타일은 정보기술 환경에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

수학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어떤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수학은 모두 공부해야 한다. 심지어 문학과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수학을 배운다. 수학이 주는 논리적 훈련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기술 혁명으로 나타나는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지식은 '수학' 지식과 다를 게 없다. 이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전통적인 분야 전문가는 구닥다리 전문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개별 정보와 지식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란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몇 년 전 정보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도서관 구성원들이 정보혁명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국회도서관 직원은 사서, 행정, 전산직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영역은 고유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영역 간 장벽도 존재한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국회도서관이 되기 위해선, 모든 영역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빅데이터,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과거 전산직의 고유영역으로 분류됐던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배워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식 없이는 어떤 영역에 있더라도 창의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인류역사에서 세 번째로 겪고 있는 혁명시기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국회도서관의 모든 구성원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의 변화가 곧 국회의 입법활동의 변화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